

**SNUAC Visiting Scholars Brown Bag Seminar Series, 2016 Fall**

**<전등신화>의 조선 시대 번역본의 번역(變譯)연구**

**--- 서울대학교와 서강대학교 소장본을 중심으로**

**손학운**

<전등신화>는 조선 시대에 한반도에 전파되어 그 후 한국 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중국 명대(明代) 소설이다. 그러나 <전등신화>의 조선 시대 번역본은 근래에 들어서야 발굴되기 시작했다. 2011년까지 총 4개의 번역본이 발굴되었는데 서울대학교 소장본, 단국대학교 소장본, 고려대학교 소장본과 서강대학교 소장본이 그것이다. 이 중, 서울대학교 소장본과 서강대학교 소장본이 같은 판본의 번역본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서울-서강본으로 약칭하겠다. <전등신화>의 역본들 중에 서울-서강본은 발굴된 작품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번역된 역본일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등신화>의 서울-서강본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역본들은 주로 번역(變譯)의 번역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술론적 번역연구의 시각으로 이들 역본에 드러난 번역 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역본의 번역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손학운 박사는 2012년 중국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번역학, 한국문학 등이며, 현재 중국전매대학(中国传媒大学) 외국어학원(外国语学院)에서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손학운 박사는 중한문학비교연구, 중한번역연구, 한국어교육연구에 관한 1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고, 한국문학을 비롯한 10여권을 중국어로 번역했다. 이 외에 한국문학과 문화 전파연구에도 관심이 많다.

**Date & Time: Dec 1(Thur) 2016, 12:00-13:00**

**Location: SNUAC #406**